

불법체류 외국인들 '인권사각' 방치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2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불법 체류 외국인 가운데 상당수는 임금체불이나 의료지원 소외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광주·전남 5천명 등 전국 20만명 육박 상당수 임금체불·의료지원 부재 호소 교통사고 신고도 못해...대책 마련 시급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56만3733명이 등록됐으며 이중 불법체류자는 18만3794명(11.8%)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18만794명) 늘어난 수치다.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은 3만19965명으로, 비전 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비자 등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한 인원은 약 1만9533명(48.9%)이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도 5000명 이상의 불법체

태였으며,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까봐 병원에도 못가고 고통을 잇기 위해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지난 2002년 입국해 2004년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광양 등지에서 일용직 생활을 하며 가족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송금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 순천에 위치한 한 민간 외국인지원단체를 찾아 "고국에 있는 어머니가 많이 아프니 돈을 보내줘야 한다"며 송금을 부탁하기도 했다.

광주 이주노동자센터와 아시아 외국인근로자센터 등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은 임금체불이나 업무 중 재해를 입어도 호소를 못하고, 설사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신분이 밝혀질까봐 도주해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국을 하더라도 원금 등의 보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의료지원 여가생활은 꿈도 못 본다.

일부 약덕업주들은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겠다"며 불법체류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미루는가 하면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다며 손저걱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아시아외국인근로자센터를 찾은 베트남인 A(29)씨는 2년 전 2년 동안 일을 한 업체에서 퇴직금 지급을 여태 미뤄 본국으로 못돌아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본국에 있는 2살 자녀가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A씨에게 수백만원에 달하는 퇴직금은 가족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센터를 찾은 캄보디아인 B(21)씨는 업주가 자꾸 구타한다며 하소연했다. 업주는 B씨가 일하는 모습이 답답하다며 상습적으로 B씨의 배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외국인근로자센터 관계자는 "불법체류외국인들은 집에 아픈 가족이 있거나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등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자마디의 이유가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됐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희기자 kimyh@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대학 등록금 인상률 내년 3.8%이내 제한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3.8%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등록금 인상률의 바탕이 되는 2011~201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이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은 3.8%가 나온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2011년 5.1%, 지난해는 5.0%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2.2%, 올해 1.2%로 내려가 내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도 떨어졌다.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올해와 내년 평균 등록금의 증감을 통해 구한다.

교육부는 인상률 상한선을 어기는 대학에 대해 재정사업 제외, 감사 등 각종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상한선을 어긴 대학은 없다.

연환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0분 해질 17시 30분 달돋이 04시 52분 달질 15시 26분

누그러진 추위
대부분 맑은 가운데 뇌졸중 위험 늘었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0/7℃
목포	맑음	0/7℃
여수	맑음	0/8℃
나주	맑음	-3/7℃
완도	맑음	-0/9℃
구례	맑음	-3/7℃
강진	맑음	-3/8℃
해남	맑음	-3/9℃
장흥	맑음	-4/9℃
순천	맑음	-2/8℃
영광	맑음	0/8℃
진도	맑음	0/8℃
전주	맑음	-1/7℃
군산	맑음	1/7℃
남원	맑음	-3/6℃
혁신도	맑음	3/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갭기(수) 동파(수) 뇌졸중(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2.0m 서~북서 1.0~2.5m 보통 낮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서~북서 1.0~2.0m 보통 낮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2.0m 목포 12:19 05:04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여수 07:32 00:38
19:20 13:36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1(화)	1/1(수)	2(목)	3(금)	4(토)	5(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8	2/6	-2/8	-1/8	-1/6	-1/4

신임 광주·전남경찰청장 인터뷰

“주민과 더 가까워지는 ‘체감 치안’ 역점”

장전배 광주청장



“시민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주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쏟겠습니다.”

장전배(51) 신임 광주지방경찰청이 지난 27일 광주청 빛고을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장 청장은 이날 “치안 상황은 현장에서 보는 것이 옳다.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보아야 한다”며 “그동안 지방청 위주였던 업무행태에서 벗어나 주민과 가까운 곳의 의견이 반영된 시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주민의 ‘체감 치안’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그는 또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면서

광주 경찰이 ▲자신있게 업무를 끝내갈 수 있는 지성 ▲주민과 현장의 요구를 읽을 수 있는 감수성 ▲청의 적으로 업무를 발전시키는 상상력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장 청장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이벤트 행정, 잘못된 업무관행, 일방적 지시에 매몰된 조직문화 대신,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해 나가는 ‘청의 치안’을 실현해달라”고 말했다.

장 청장은 전주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했으며 무안서장을 지냈고 전북지방경찰청장, 제주지방경찰청장, 경찰청 보안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장 상황별 매뉴얼 준비 법질서 확립”

정순도 전남청장



“분명한 원칙과 현장 상황별 매뉴얼로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순도(56) 신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7일 취임식에서 “기초질서가 무너지면 각종 범죄가 파생될 수 있다”면서 “사소한 집회시위 규정 위반이 나중에 불법·폭력시위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파업 관련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과 현장 상황별 매뉴얼을 준비해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또 광주·폭력업단, 2014년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도 주문했다. 장 청장은 “주민의 애환을 헤아려 대처하는 경찰관이 ‘참 경찰관’”이라며 “도민의 행복은 범죄로

부터의 안전에서 출발하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시 구절처럼 도보순찰을 강화해 주민을 자세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장 청장은 “금품·향음 제공, 사건 조작, 음주운전 등 경찰 굴욕의 대명사인 의무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순 출신인 장 청장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간부후보 29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어 서울청 경무부장, 서울청 차장을 거쳐 광주청장을 지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호남고속도 내일부터 ‘구간 과속단속’

곡성~석곡 나들목 10km에 카메라 4대 운용

호남고속도로 ‘구간 과속단속’이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하행선) 곡성 나들목~석곡 나들목 구간 10km에서 31일 오전부터 구간 과속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구간 과속 단속에는 모두 4대의 카메라(시점 2대·종점 2대)가 운용된

다. 카메라 설치 지점뿐 아니라 시점과 종점의 카메라를 이용해 시간과 거리를 계산, 평균 속도를 산출할 수 있어 단속에 효과적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법적근은 제한속도(100km)를 넘을 경우 가장 많이 위반한 내용으로 부과된다. 즉, 곡성 나들목에서 132km로 진입한 차량이 석곡 나들목에서

141km 속도로 달렸다면, 평균 속도는 138km로 3지점에서 모두 과속 위반에 걸리는데, 이때 가장 무거운 141km에 규정된 범칙금(6~10만원·벌점 30점)을 부과하는 식이다.

한편, 전남지방청 고순대는 고속순찰차 리프트 경광등·LED 3단신호기 등을 전국 최초로 도입, 운용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고속도로 사망 사고율을 전년 대비 44.4% 낮추는 등 성과를 거둬 최근 ‘2013년 고속도로 교통안전대책 추진 결과’ 평가에서 전국 11개 고순대 중 2위를 달성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알코올성 위염 40~50대 중년 남성에 집중

심평원 ‘속쓰림 지속면 의심’

술자리가 잦은 연말 속쓰림이 지속된다면 알코올성 위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알코올성 위염 환자는 특히 40~50대 중년 남성에게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알코올성 위염으로 진료를 받은 1만4546명 가운데 남성이 72.

2%, 여성이 27.8%로 남성이 여성보다 2.6배 많았다.

알코올성 위염은 알코올로 위점막이 손상돼 생기는 병으로, 대부분 증상이 없으나 간혹 명치나 상복부의 통증, 구토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환자 연령별로는 50대가 25.7%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2.1%, 30대 1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40~50대의 점유율이 47.8%로, 알코올성 위염 환

자의 절반이 중년층인 셈이다. 20대에서는 여성의 점유율이 54.8%로 남성보다 높은 점이 눈에 띈다.

알코올성 위염의 전체 환자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8년 대비 33.4%가 줄었다. 이는 국민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알코올성 위염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금주”라며 “단번에 금주가 어렵다면 가급적 술의 양을 줄이는 절주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환뉴스

· 자유투어는 70억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자유투어

No.1 종합여행그룹 www.jaUtour.com

광주지점 062)371-3757

호남지역 출발 ★유류세까지 모두 포함★ (1월~3월까지 적용)

북경 아시아나항공(OZ)

북경,만리장성 4일 469,000 원~
북경,만리장성 5일 519,000 원~

상해 동방항공(MU)

상해,항주,소주 4일 569,000 원~
상해,설두산 4일 769,000 원~
상해,장가계 5일 959,000 원~

제주 (OZ,KE)

선박패키지 149,000 원~
항공+선박패키지 190,000 원~
항공패키지 259,000 원~

광주지점 오픈3주년 기획상품

-3주년 할인 EVENT- ★유류세까지 모두포함★ (12월~2월까지 적용)

방콕, 파타야 5일	879,000 원~
푸켓 5일	1,029,000 원~
베트남, 캄보디아 6일	1,129,000 원~
사이판 PIC 4일	1,300,000 원~
사이판 PIC 5일	1,350,000 원~
치앙마이관광	1,149,000 원~
치앙마이무제한골프	1,399,000 원~
치앙마이품격골프	1,449,000 원~

♥히니문 기획상품♥ 경품증정 [2014.3.1~6.30 적용]

푸켓 (특가) 리치몬드원베드풀빌라	1,410,000 원~
(품격) 더비짓프라임풀빌라	1,630,000 원~
(고품격) 마이카오드림투베드풀빌라	1,840,000 원~
보라 (특가) 크라운리젠시디럭스	1,180,000 원~
카이 (품격) 리젠시프리미어	1,320,000 원~
(정통) 크림슨디럭스	1,310,000 원~
(품격) 임페리얼오션디럭스	1,340,000 원~
(고품격) 임페리얼오션원베드스윗	1,480,000 원~

창사 20주년 상품

- 자유투어만의 특별가격 -

자유투어 ONLY

유럽 [선착순 특가 적용]

특급3박/사프란볼루/돌마바흐체 터키 9일 999,000 원~
고객만족위/고객 송출위 동유럽 6국 9일 1,390,000 원~
발칸+크로아티아일주 5국 9일 1,690,000 원~

중국 [홍쇼핑 大 HIT상품]

북경 웨라톤호텔+VIP리무진 4일 369,000 원~
[인터컨티넨탈호텔] 성도/구채구/모니구 4일/5일 399,000 원~
상해 곤산코트아트메리어트호텔 4일 399,000 원~

일본 [방학특선 & 홍쇼핑 HIT]

[부산출발] 아미쿠치 우베 이이쿠니 천연온천 4일 169,000 원~
아시아와 함께 후쿠오카/아소/우후인/벳부 온천 3일 329,000 원~
[NO옌선] 오사카/나라/교토 온천 3일 399,000 원~

남태평양/미주 [특가로 즐기는 성수기]

호주 시드니 특급저비스베아스노쿨링 6일 1,290,000 원~
[실속 5 Star 항공] 호주 뉴질랜드 남북섬 10일 2,190,000 원~
미서부+3대캐년+후버댐 8일 1,690,000 원~

예/약/상/담 상무점 062)652-2974 전주점 063)284-6868 광양점 061)792-7222 나주점 061)332-7400 첨단점 062)385-4808 총장점 062)251-6166